

아동 및 청소년도서 선정도구 평가에 관한 연구

- 권장도서목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Selection Tools for Children's and Young Adults' Book : Through the Recommended Book List

이 연 옥(Yeon-Ok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가. 권장도서목록의 생산과정 |
| II. 권장도서목록의 현황 | 나. 권장도서목록의 형식과 구성 |
| III. 권장도서목록의 평가 | 다. 권장도서목록의 배포와 확산 |
| 1. 평가기준과 평가대상의 설정 | IV. 결론과 제언: 권장도서목록의 개발방안 |
| 2. 평가내용과 결과 | |

초 록

권장도서목록은 '좋은 책'을 안내하여 책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되는 권장도서 목록은 도서관 및 교육현장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용 독서자료 선택을 위한 선정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도서용 권장도서목록의 생산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권장도서목록이 선정도구로 적합한지를 평가하였다. 이후 권장도서목록이 선정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좋은지 그 개발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어린이도서, 청소년도서, 권장도서, 추천도서, 권장도서목록, 추천도서목록, 서지도구, 선정도구, 선정정보원, 서지정보원, 도서선정, 장서관발

ABSTRACT

Recommended book lists make 'a good book' known and help choose the books. Currently, the recommended book lists published by various institutions are primarily used as the selection tool for choosing children's and young adults' book in many libraries and schools. Considering this reality, I examined the present production condition of the recommended book lists and evaluated whether they were suitable as a selection tool. Afterwards, I suggested the development methods about how the recommended book lists will be developed for them to function as a selection tool.

Key Words: Children's Book, Juvenile Book, Young Adult's Book, Selection Tool, Recommended Book List, Book Sel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accesspt@naver.com)

• 접수일: 2006년 5월 19일 • 최초심사일: 2006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6월 22일

I. 서론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증대와 더불어 독서의 대상이 되는 '독서자료 선택'의 문제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고민거리이다. 어떠한 책이 아이들에게 좋은 책인가? 어떠한 책을 아이들에게 권하면 되는가? 아이들의 독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서를 비롯하여 교사와 학부모들은 범람하는 도서들 가운데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권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모색을 하게 된다. 특히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좋은 도서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대표적인 기관으로 존재한다. 도서관과 사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좋은 도서를 선정함으로써 "어린이 주위의 정보공해와 자료오염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가 마음 놓고 자료를 고를 수 있게"¹⁾ 해야 한다. 또한 사서는 각종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자료에 대한 지식과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어린이·청소년도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상담과 조언을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서가 출판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어린이나 청소년의 발달단계나 심리적 특성, 요구와 흥미, 어린이 및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좋은 책을 선정하는 일은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출판되고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용 책의 출판량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들어 어린이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어린이분야 출판량의 증가는 급격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²⁾ 지난 한 해(2005년) 발행된 어린이도서만 해도 7,146종이나 된다.³⁾ 이러한 어린이도서의 출판량과 그 증가량을 고려해볼 때 출판되는 모든 책을 검토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합한 좋은 책을 고른다는 것은 현재 사서가 처한 업무상황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⁴⁾

1) 김효정,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모형," 중대논문집(인문과학편), 32집(1989), p.89.

2) 최근 10년간 어린이도서 발행량과 증가율을 살펴보면(아래 표 참고), 어린이도서의 출판량의 증가율은 전체일반도서의 증가율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1997년~2005년 참고)

연도	아동도서		전체도서	
	발행종수	전년대비증감율	발행종수	전년대비증감율
1997	4,538	9.7 %	33,610	4.2 %
1998	3,864	-14.9 %	36,960	10.0 %
1999	3,399	29.9 %	35,044	5.1 %
2000	4,062	19.5 %	34,961	0.2 %
2001	4,754	17.0 %	34,279	1.9 %
2002	6,103	28.3 %	36,186	5.5 %
2003	5,219	-14.4 %	35,371	-2.2 %
2004	5,913	13.3 %	35,391	0.1 %
2005	7,146	20.9 %	43,585	23.2 %

3) 각주 2)의 표 참고.

결국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도서관은 양질의 도서를 구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관점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도서를 평가한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정보원을 어린이 및 청소년자료의 선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이들 정보원에는 서평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나름의 선정을 거쳐 배포되는 추천도서목록이나 권장도서목록⁵⁾들이 해당된다. 이들 어린이 및 청소년도서에 대한 정보원들은 어린이 및 청소년도서 출판량의 증가와 함께 도서관의 도서 선정을 비롯한 장서개발업무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과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권장도서목록은 현재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언론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좋은 책을 소개하는 형태로 생산되고 있고, 실제 도서관현장과 학부모, 교사들은 이들 권장도서목록에 실린 아동 및 청소년 도서를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⁶⁾ 또한 사서, 학부모, 교사들의 이와 같은 행태와 경향은 서점이나 출판사의 판매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출판사나 서점은 책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기관의 권장도서목록에 실린 도서임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 출판사는 자신의 출판사에서 생산된 책이 특정기관의 권장도서로 선정되고 나면 재판을 찍을 때 ‘어디 어디 권장도서 선정 이라는 마크를 붙여 출판함으로써 자사의 책을 홍보하여 소비자들의 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특히, 인터넷서점 이용의 확대로 권장도서목록의 영향력은 보다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어린이도서 판매 비율이 높아지자 인터넷서점은 판촉전략의 일환으로 각 기관에서 생산된 권장도서목록을 비중 있게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권장도서목록이 도서선택을 위한 정보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현재 생산, 배포되고 있는 이들 권장도서목록은 도서선택을 위한 선정도구로 기능하기에 적합한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작,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개발한 권장도서목록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수준에 적합하지 못한 도서들이 버젓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특정한 출판사나 저자의 책들이 줄곧 들어가는가 하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꼭 읽혔으면 하는 책들은 빠지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는 선정위원들이 책을 읽고 뽑았는가를 의심하게 하는”⁷⁾ 책들도 권장도서목록에 구성되어 있기도

4) 현재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의 경우 대개 사서 1명이 보조자 1 명의 도움으로 주고객인 어린이와 그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기에 주로 대출, 반납, 책정리 작업 등 비전문적 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등 업무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에 언급되어 있다.(이연옥,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6권, 제 3호 (2005. 9), pp.233-256.)

5) 권장도서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단체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책이라 정하여 장려하는 도서를 말한다. 현재 권장도서는 추천도서, 선정도서, 표준도서, 필독도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권장도서란 이름으로 통일한다.

6) 공공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교사들이 권장도서목록에 의존하여 아동 및 청소년용 도서를 선택하고 있는 관행은 다음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향옥(초등학교 저학년 권장도서 선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권해줄 도서를 선택할 때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된 권장도서목록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김수경(어린이도서선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1995)의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들이 자료선택 시 권위 있는 기관의 권장도서목록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오진원, “아이들에게 책은 어떻게 권해지고 있나?,” 어린이책 문화운동 점검과 방향모색(어린이도서연구회 25주

하다. 그리고 이들 권장도서목록에 실린 책들은 실제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는 외면받기 일쑤인 경우도 많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책들이 ‘좋은 책’이란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산되는 권장도서목록의 형식과 내용 또한 생산하는 기관만큼이나 다양해서 권장도서목록이 사서를 비롯한 교사나 학부모들의 책 선택을 위한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권장도서목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목록을 생산하는 기관의 권위만을 믿고 이것에 기대어 해당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선택해버리고’ 마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 같다. 따라서 현재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자료의 선택활동에 관련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각 권장도서목록이 자료선택을 위한 서지정보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각 권장도서목록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와 관련된 주요 선정정보원이라 할 수 있는 권장도서목록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권장도서목록을 비교 검토해서 각 권장도서목록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자료선택을 위한 안내역할’을 할 만큼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권장도서목록이 선정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좋은지 그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서들이 권장도서목록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서들의 장서개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장도서목록을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하는 교사나 학부모들과 같은 이용자들의 권장도서목록 활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권장도서목록 생산기관들의 권장도서목록 개발과 관련한 활동에도 다양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권장도서목록의 현황

권장도서목록은 생산되는 기관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정부기관에서 생산되는 권장도서목록을 비롯하여 둘째, 도서관계, 출판계, 독서관련 시민단체나 사회기관에서 생

년 기념식 및 정기세미나자료집), 어린이도서연구회, 2005, p.60.

8)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김호정, “권장도서목록 들여다보기,” 중등우리교육, 1998, 10, pp.72-76.; 김은하, 1990년대 한국 아동문학의 장의 지배구조 형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김은하, “권장도서목록을 버려야 하는 이유-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목록 비판,” 창비어린이(2005, 가을), pp.49-67.;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어린이도서연구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독서매뉴얼, 독서인증제의 문제점과 올바른 독서교육의 방향 모색(올바른 학생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공개토론회자료집), 2005, 4, 27.; 허병두, “이해와 비판, 그리고 제안-권장도서목록의 작성과 도서선정 작업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2002, 11, 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하는 권장도서목록, 셋째, 신문, 방송 등의 언론기관, 넷째, 출판사, 서점, 독서관련영리단체와 같은 상업적 기관, 다섯째, 기타 개인이 개발한 권장도서목록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먼저, 문화관광부에서 1968년부터 현재까지 매 해, 그 해 1년 동안에 발행된 신간서적 중에서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 교양도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중 아동 및 청소년 분야의 추천도서들이 일부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기구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지적 성장을 위한다는 명분에서 분기마다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각종 권장도서목록을 생산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먼저, 가장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200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의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해 교과관련 도서목록과 이를 활용한 수업안 등을 담은 독서지도매뉴얼을 개발한 바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은 2004년부터 매년 초중고생들을 위한 권장도서목록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2년 독서경시대회용 지정도서목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권장도서목록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2. 시민사회단체

어린이책과 독서관련 시민단체인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는 1980년, ‘젊은 교사들이 추천하는 아동도서’라는 이름으로 목록을 발표한 후 해마다 어린이권장도서목록을 비롯하여 계절별로 권하는 책, 주제별로 권하는 책, 어린이도서관용목록 등을 생산,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독서교육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모임인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방학, 겨울방학용 권장도서목록을 비롯한 상황별, 주제별 목록 등 다양한 형태의 권장도서목록을 개발 배포하고 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 학교도서관분과 서울지부모임에서도 중고등학생을 위한 권장도서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출판관련 단체로서는 한국출판인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개발한 권장도서목록이 있다. 먼저 300여 단행본 출판사가 1998년 설립한 한국출판인회의는 인문,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대중문화, 실용, 청소년, 어린이 등 모두 8개 분야에 걸쳐, 한국출판인회의 회원 출판사들이 간행한 책 가운데 ‘이달의 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그해 출판된 신간도서를 중심으로 ‘올해의 청소년도서’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도서관관련 단체로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1999년에 상황별 독서목록(아동· 청소년 편)을 2005년에는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청소년· 어린이 편)을 발간하였다

3. 신문과 방송

신문의 경우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에서 신문사 이름으로 권장도서를 선정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앙일보의 경우 ‘좋은 책 100선’이라는 권장도서목록을, 동아일보는 ‘좋은 어린이책’이란 이름으로, 문화일보에서는 ‘어린이 추천도서 90선’이란 이름의 권장도서목록을 발행하였으나 현재는 신문사이름으로 발표되는 권장도서목록은 사라진 상황이다. 다만 각 신문사마다 성인 어린이 구분 없이 그 해 출판된 책을 중심으로 하여 각 분야마다 좋은 책을 선정하여 ‘올해의 책’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⁹⁾ 또한 일간지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서평란을 할애하여 신간 중심의 책을 소개하고 있다. 신문의 서평기사는 인터넷서점에서 ‘미디어 추천도서’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방송의 경우, KBS ‘TV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책을 소개하고 있으나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책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책의 경우 문화방송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선정하여 소개하였으나 현재 중영되었다. 특히, 느낌표에서 소개된 책은 ‘느낌표 선정도서’라 통칭되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등 도서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4. 영리기관

영리기관으로서 권장도서목록을 선정하는 기관은 교보문고, 아이북랜드,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한국독서교육연구원, 어린이인터넷서점인 키드맘, 오픈키드 등이 있다. 영리기관들은 도서의 판매 및 대여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도서목록을 선정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자사의 홍보 및 판매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5. 기타

이외에도 다양한 권장도서목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아침독서운동을 전개하는 어린이도서관연구소라는 민간단체에서도 ‘아침독서용 추천도서’ 684권을 선정 발표하였다.¹⁰⁾ 그리고 서울대

9)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그 해 출판된 우수도서를 각계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10) ‘아침독서운동’을 전개하는 어린이도서관연구소에서 선정, 발표했다. 어린이도서관 사서, 초등학교 교사, 어린이 책 연구가 등으로 구성된 추천도서심사위원회가 2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684권을 선정했다.

에서도 '서울대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¹¹⁾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가진 개인이 만들어내는 목록들도 있다.

Ⅲ. 권장도서목록의 평가

도서관을 비롯하여 학교와 같은 교육현장에서 권장도서목록의 활용이 높은 현상만을 고려하면 권장도서목록이 도서선택을 위한 선정도구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평에 대한 평가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평이 선정도구로 기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연구나 서평에 대한 평가 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¹²⁾ 권장도서목록의 경우 주로 권장도서목록간의 비교연구, 권장도서목록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¹³⁾이 주를 이루는 반면, 권장도서목록이 선정도구로서 어느 정도 유용한지에 대한 평가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도서관 사서를 비롯한 학교교사, 학부모들의 도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들 권장도서목록이 '자료선택을 위한 안내역할'을 할 만큼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권장도서목록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기준에 의거해서 권장도서목록을 실제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이들 권장도서목록이 도서선택을 위한 서지정보원으로 어느 정도 유용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서울대는 2005년 서울대생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 100 선을 발표했다. 이 권장도서 목록은 지난 1993년 서울대가 발표한 '동서고전 200선'을 바탕으로 분야별 교수 20여 명이 선정하였다.

12)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Bishop & Orden, "Reviewing children's book: a content analysis," *Library Quarterly*, Vol.68, No.2(1998), pp.145-182.; Wilson, Margo and Kay Bishop, "Criteria for reviewing children's book,"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43, No.1(1999), pp.3-13.; Blake, Virgil L. P., "The role of reviews and reviewing media in the selection process: an examination of the research record," *Collection Management*, Vol.11, No.1·2(1989), pp.1-40.; Dodson, J. S.(1983), A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picture story book reviews published in selected journals during the year 1981.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Kennemer, P. K.(1980). An analysis of reviews of books of fic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ublished in major selection aids in the United States in 1979.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Mecham, M. E.(1989).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book reviewing in selected journals from 1924-1984.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장지숙, "어린이 도서 서평매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4. 6), pp.213-238.

13)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박은자, "청소년용 독서자료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창간호(1996), 김남두 외, 초·중등학교의 독서자료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개발 연구, 1999. 이철우, 박진룡, "청소년 독서자료의 분석," 독서연구, 3호 (1998).

1. 평가기준과 평가대상의 설정

가. 평가기준의 설정

아동 및 청소년용 권장도서목록이 자료선택을 위한 선정도구로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평가할 것인지, 즉 평가기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권장도서목록의 '자료선정도구로서의 유용성'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우선, 평가항목을 크게 권장도서목록 생산과정의 측면, 형식과 구성의 측면, 보급 및 확산의 측면 세 항목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목록생산과정의 측면에서는 생산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며 합리적인가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첫째, 선정과정의 체계성, 둘째, 선정과정에서 해당 독자(어린이와 청소년)의 수준과 반응을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 셋째, 선정기준의 제시여부 및 기준의 명확성, 넷째, 선정자의 명시 여부를 세부사항으로 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음 평가항목은 권장도서목록의 형식과 구성에 대해서이다. 이 항목에서는 권장도서목록이 서지정보도구로서 어느 정도 유용한가에 초점을 두고 실제 사서, 교사, 학부모들이 자료선택을 위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부항목으로 첫째, 기본적인 서지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지, 즉 서명, 저자명, 역자명, 삽화가명, 출판사, 출판일, 면수, ISBN, 가격 등 선정도구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둘째, 읽는 독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적절한 독자연령이나 학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셋째, 선택을 위한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해제나 서평을 비롯한 추천의 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넷째, 이러한 해제나 서평, 추천 글의 내용 및 형식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평가항목인 권장도서목록의 보급과 확산의 측면에서는 생산된 권장도서목록이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권장도서목록의 소비자인 사서나 교사, 학부모 등에게 전달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권장도서목록의 배포형태, 둘째, 권장도서목록 배포기관의 범위, 셋째, 권장도서목록이 얼마나 주기적으로 발행되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이상의 평가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이 <표 1>로 정리될 수 있다.

〈표 1〉 권장도서목록 평가 항목

대항목	소항목
· 생산과정	- 선정과정이 체계적인가 - 읽는 독자에 대한 수준과 반응을 고려하고 있는가 - 선정기준이 제시되었는가 - 선정기준이 명확한가 - 선정자를 명시하였는가
· 형식과 구성	- 서지사항이 적절히 기술되고 있는가 - 적절한 독자연령이나 학년에 대한 명시가 있는가 - 서평, 해제, 추천의 글이 있는가 - 서평의 형식과 내용은 어떠한가
· 배포와 확산	- 주기적으로 발행되는가 - 어떠한 형태로 배포되는가 - 배포기관과 단체의 범위는 어떠한가

나. 평가대상 권장도서목록

이 연구에서 평가대상으로 삼는 권장도서목록은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 발표하는 상업적 기관의 목록이나 개인이 선정한 권장도서목록은 제외키로 한다. 또한 언론기관의 권장도서목록은 현재 발행이 중단된 상황이라 이 또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사서, 학교교사, 학부모들의 도서선택 과정에 활용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부관련기관,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발행된 권장도서목록을 대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평가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권장도서목록은 다음의 〈표 2〉와 같다.¹⁴⁾

〈표 2〉 평가대상 권장도서목록

유형	발행기관	권장도서목록명
정부관련기관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추천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청소년추천도서
	부산시교육청	- 초중고생을 위한 권장도서
사회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	- 이달의 청소년도서
	한국출판인회의	- 이달의 책
	한국도서관협회	- 상황별 독서목록(아동·청소년 편)
	어린이도서연구회	- 어린이권장도서목록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	- 주제별/상황별 권장도서목록 - 여름/겨울방학권장도서목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 학교도서관분과 서울지부모임	- 중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 - 고등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

14)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0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의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해 교과관련 도서목록과 이를 활용한 수업 안 등을 담은 독서지도 매뉴얼을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할 예정에 있으나, 현재 교육계 및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목록을 생산한 서울시교육청은 이 목록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교사들이 지도할 때 참고하도록 작성된 자료로 추천도서나 권장도서의 성격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 이 논문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고자 한다.

2. 평가내용과 결과

가. 권장도서목록의 생산과정

(1) 선정과정의 특성

권장도서목록의 생산은 자료의 선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선정된 책에 대한 신뢰정도는 선정과정 이 얼마나 체계이고 합리적인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보통 권장도서의 선정은 기관에 따라 자체 적으로 선정을 하는 경우와,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위촉하여 선정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진 행되고 있었다. 자체선정은 주로 어린이도서연구회(이하 어도연),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이하 책따세), 전교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실천위원회학교도서관분과서울지부모임(이하 전교조학 교도서관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 위촉하여 선정하는 곳은 한국간행물윤리위 원회, 문화관광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시교육청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예를 들어, 어도연의 경우는 2년 이상 어도연 활동을 한 10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신간평가위원 회에서 자료선정이 이루어진다. 이들 회원들은 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 이상 어린이책을 읽어온 것으로 “내 아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주고 싶은 소비자의 마음으로 책을 선정”하며, “수년간 어린이 책의 현장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얻은 감식안”¹⁵⁾을 토대로 선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신간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책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전체 회원들의 토론회를 거친 뒤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있었다.¹⁶⁾ 특히, 어도연은 책의 소비 자나 독자의 입장에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는 반면에 아동문학비평가를 비롯하여 작가, 아동도서 전문편집인과 같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의 전문성에 있어서 비 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도연이 선정한 책은 일반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⁷⁾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의 경우는 전교조학교도서관 분과 서울모임의 14명의 회원교사들이 서로 추천하여 함께 읽은 후, 토론한 다음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책따세는 국어교사, 사서교사 등으로 구성된 50여명의 회원들이 서로 추천하며, 토론을 거쳐 선택한 뒤, 학생들에게 읽혀보고 그 반응을 검토한 뒤 최종 선정하고 있었다.

외부전문가에 위촉하여 선정하는 경우는 대개 각 주제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평위원회, 선

15) 조윤희, “「어린이 권장도서목록」과 어린이 책문화의 변화” 어린이책 문화운동 점검과 방향모색(어린이도서연구회 25주년 기념식 및 정기세미나자료집), 어린이도서연구회, 2005, pp.24-26.

16) 상계논문, p.24.

17)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관변단체 중심의 이데올로기 홍보를 위한 목록이나 상업적인 전집물, 질 낮은 출판물이 행행하는 왜곡된 독서환경에서 어도연이 시민운동단체로서 오랜 기간 동안 올바른 독서문화의 정착을 위해 해온 다양한 활동과 노력으로 인해 생긴 신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는 모양을 띤다. 문화관광부의 권장도서 선정과정을 예로 들면,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34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예비심사, 분야별 전문심사, 전체 본심사 및 최종심사 등 4단계의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고 있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에서도 단계만 달리할 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선정하고 있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경우는 외부 관련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목록개발이 이루어졌다.

한편, 권장도서목록 생산과정에서 책을 읽을 독자인 수요자에 대한 요구와 반응을 실제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보았다.¹⁸⁾ 그 결과 책파세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생산된 권장도서목록이 수요자의 요구와 반응을 선정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책파세의 경우 국어교사, 사서교사 등을 위주로 한 책파세 회원인 교사가 중심이 되는 자체선정을 행하고 있으나, 책선정과정에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반응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책파세 자체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는 목록선정과정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책파세 선생님들이 각자 좋게 보는 책을 추천합니다. 여기에 책파세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추천 책들도 포함됩니다. 이 책들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탈락과 검토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책 한권에 대해 적어도 선생님 두 분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책 선정에서 독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책에 대하여 책의 질이 떨어진거나 청소년에게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 책은 목록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이렇다는 의견이 나오면 검토 목록으로 옮겨둡니다. 찬반 의견이 날카롭게 맞설 때는 책파세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유대화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책에 대한 논의가 풍부해지지요. 여러 분야에서 좋은 책을 선정하는 작업이 끝나면, 교사가 책을 꼼꼼히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읽혀봅니다. 책파세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각자 자신의 판단을 올려놓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서 다시 회의를 합니다. 검토 대상이 된 책들 가운데서 ‘넣을 책과 뺄 책’을 마지막으로 결정합니다.¹⁹⁾

책파세의 자료선정과정에는 교사들의 자료선정 후 선정된 책의 수용자라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 읽혀봄으로써 그 반응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책선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다른 권장도서목록의

18) 권장도서목록 생산과정에서 수요자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작업과 더불어 권장도서목록생산이후 이들 목록이 어느 정도로 수용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사실 권장도서목록의 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권장도서목록에 실린 책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을 비롯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다.

19)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방학 때 이런 책 어때요?!” ,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홈페이지 (<http://www.readread.or.kr>)

선정과정과는 차별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책따세 목록이 가지는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책따세의 권장도서목록에 실린 책들은 청소년들에게 유용하게 읽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⁰⁾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생산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황별독서목록의 경우, 책따세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수요자의 책에 대한 반응을 책선정과정에 도입하고 있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책을 읽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책을 관심 있고 인상 깊게 읽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이러한 결과를 자료선정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독서욕구에 기반한 목록을 개발하고 있었다.

실제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자료를 선정할 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대상 자료에 대한 평가와 읽을 독자에 대한 파악이다. 책이 가지는 내용적, 형태적, 서지적 요소를 기반으로 해당 도서의 가치를 평가할 뿐 아니라 해당 독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지, 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더불어 실제의 반응 결과까지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나왔던 대부분의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권장도서목록들이 책을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가 선정한 좋은 책을 던져주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잘 읽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책따세와 한국도서관협회의 권장도서목록은 수요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의 목록보다 돋보인다. 책을 읽을 독자를 비롯하여 수요자의 독서욕구와 반응을 살펴보고 이를 선정에 반영하는 작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면서, 보다 유용한 도서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선정기준 및 선정자의 명시여부와 선정기준의 명확성

권장도서의 선정기준과 선정자에 대한 검토는 각 기관이 보급하는 자료나 각 기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표 3 참고). 먼저, 각 기관에서 생산된 권장도서목록의 선정기준이 제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기관은 부산시교육청,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도서관협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전교조참교육실천위원회학교도서관분과서울지부모임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관련기관인 문화관광부²¹⁾,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시된 각각의 선정기준을 기관별로 검토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20) 오진원, 전개논문, p.61.

21) 문화관광부의 경우 상업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표 3〉 기관별 권장도서목록 선정기준

발행기관	선정기준
문화관광부	· 선정기준 제시하지 않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선정기준 제시하지 않음
부산시교육청	· 학생들의 자아실현 및 소질개발에 도움을 주는 도서, 꿈과 희망을 주는 삶의 태도나 성장의 이야기가 담긴 도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다룬 도서, 다양한 지식습득 및 정서 함양, 건전한 윤리관 정립에 도움이 되는 도서,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서, 조국과 민족의 소중함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일깨우는 도서, 교과 수행평가 및 체험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도서, 믿을 수 있는 도서 및 도서관 평가에서 선정된 도서, 전국지역 다수 학교의 교과협의회 및 교사연구회, 도서 및 독서교육 전문가가 선정한 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	· 예비심사기준: 1)저자, 편·저자, 역자, 발행일, 발행처 등 서지적 사항의 구비여부 2)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의 표기여부 3)개정판이거나 재쇄의 도서여부 4)심사대상 기간 내의 발행 여부 · 본심사기준: 청소년의 교양 및 정서함양에 적합한 도서, 건전한 도덕관과 가치관 확립에 적합한 도서, 창의성, 논리성을 높이고 탐구심이나 지적호기심을 고취시키는 도서
한국출판인회의	· 선정기준 제시하지 않음
한국도서관협회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독서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독서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에 적합한 도서 선정
어린이도서연구회	· 어린이를 삶의 주체로 보는가, 일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는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의 역사적·문화적 정서에 맞는가, 통일을 지향하는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가, 깨끗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²²⁾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	· 책 자체의 질과 청소년의 정서감각을 고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 학교도서관분과 서울지부모임	· 내용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책인가, 감성을 풍부하게 키워주는 책인가, 진실하고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책인가,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는 책인가 ²³⁾ · 표현면: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표현을 썼는가, 글의 구성은 탄탄한가, 글의 표현이 내용에 맞게 잘 되어 있는가, 책에 실린 삽화나 그림, 사진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 기타: 편집과 책표지 디자인은 잘 되어 있는가, 인쇄, 교열, 제본 상태는 좋은가, 적당한 절차를 밟아 출판된 책인가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출판인회의의 경우는 특별한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외부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권장도서를 선정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도서선정을 선정자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권장도서의 선택이 선정자 개인의 식견과 안목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어 문제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22)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이와 같은 기준과 더불어 유아그림책, 한국창작, 외국창작, 옛이야기, 과학환경, 역사인물 등 장르별 세부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3) 이외에도 다음과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르고 정확한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인가, 상상력 추리력,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인가, 탐구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인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책인가, 식물과 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워줄 수 있는 책인가,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책인가, 더불어 사는 삶을 보여주는 책인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책인가, 우리 역사를 바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가,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가,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 인종 간에 평등한 관계를 전제한 책인가,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책인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워 주는 책인가, 생각의 확대를 가져다주는 책인가.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출판인회의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명시된 선정기준은 대부분이 책의 내용적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 또한 포괄적이며 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 중 보다 체계적으로 선정기준을 제시한 단체는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이다.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는 책의 내용적 부분에 대한 기준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표현을 썼는가의 여부, 글과 구성, 글의 표현, 삽화나 그림을 비롯한 편집과 책표지디자인, 인쇄 교열, 제본 상태 등 책의 구성과 표현, 형태적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부화하여 제시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어도연이 밝힌 기준은 이 단체가 표방하는 성격에 중점을 두어 책의 내용적 부분을 중심으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아그림책, 한국창작, 외국창작, 옛이야기, 과학환경, 역사인물 등 자료의 장르별로 세부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과는 차별적이다.

또한 책파세는 앞서 권장도서 선정과정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책 자체의 질과 더불어 책을 읽을 독자인 청소년의 공감을 도서선정을 위한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여름 청소년 권장도서목록의 머리글을 참고해보자.

교사가 읽지 않거나 학생에게 읽혀보지 않은 책은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책읽기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이 읽어서 좋은 반응을 얻는 확실한 책을 추천해보자'고 만든 목록인 만큼 학생들과 공감을 얻는 정도가 높은 목록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책파세의 권장도서는 교사들이 직접 읽어보고 검토한 후 학생들에게 읽혀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최종 선택한다는 점에서 수용자인 학생중심의 권장도서목록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책자체의 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시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²⁴⁾

다음 항목으로 각 기관에서 권장도서를 선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선정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표 4 참고), 주로 외부에 전문가를 위촉하여 선정위원회 및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의 경우, 대부분 분야별 전공교수를 중심으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아동문학가, 도서평론가, 교사를 비롯한 사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간행

24) 그러나 최근 책파세에 의해 간행된 단행본 '책파세와 함께하는 독서교육'에서 제시된 내용은 보다 체계적이다. 이는 책파세 대표 허병두 교사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권장도서 선정과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충실성(여러 가지 차원에서 얼마나 충실한 책인가), 가독성(청소년이 읽기 쉬운 책인가), 진솔성(바람직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가), 대표성(해당 분야의 다른 책들을 대표할 수 있는 책인가), 확장성(한권의 책을 읽고서 다른 주제나 분야의 책으로 관심이 확장될만한 책인가), 복합성(한권의 책에 서로 다른 분야의 주제와 내용을 복합적으로 담았는가), 균형성(고른 책들이 어느 하나의 분야나 장르, 주제, 출판사 등에 치우치지 않았는가)을 들고 있다. 허병두, "바람직한 추천도서목록을 만들기 위하여," 책파세와 함께하는 독서교육, 청어람미디어, 2005, pp.33-42.

물윤리위원회의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 서평위원회에서 선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들 서평위원회는 대개 각 분야의 전공 교수들로 구성되고 있었다. 이처럼 전문분야별 교수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권장도서를 선정하다보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결과들이 종종 초래되어 독서교육현장에서 비판의 소리가 제기되기도 한다. 다음의 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경우 서평위원회는 대개 각 분야의 전공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 이들은 다양한 전공과 50대 이상의 연륜으로 청소년 권장도서를 포함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모든 도서 선정 작업을 주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곧바로 청소년 부문의 권장도서 목록 작성과 도서 선정 작업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곤 한다. 즉 선정 주체와 책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수용자인 학생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결과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간윤'의 권장도서라면 안 보겠다는 학생들까지 있었던 때도 있었다.²⁵⁾

이처럼 책을 선정하는 서평위원회가 연륜 있는 해당 주제 분야 교수들로 구성되다보니 청소년이란 계층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들 '전문적 선정위원'들에 의해 선정된 책이 실제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출판인회의의 경우 해당분야의 전공교수로만 한정하지 않고 번역가, 출판기획자, 저술가, 도서평론가, 교사를 비롯한 어린이청소년 분야 단체나 현장의 전문가 등을 선정자로 참여하게끔 하고 있었다. 책파세는 학교현장의 국어교사를 비롯하여 사서교사 등이,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 또한 회원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선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주로 회원들이 권장도서선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실제 독서교육현장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의 독서교육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생산된 권장도서목록일수록 사서나 교사,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²⁶⁾ 이는 독서교육현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자료에 대한 욕구와 반응 등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축적된 것을 기반으로 권장도서를 선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정자의 실명 공개여부를 살펴본 결과 단체의 이름으로 추천된 비실명목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실명을 명시한 기관은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도서관협회, 책파세,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추천한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책임있는 권장도서목록 작성의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5) 허병두, 전계 논문, pp.15-16.

26)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조월례, 오진원, 김은하의 논문과 어린이도서연구회 25주년자료집(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책 문화운동 점검과 방향모색(어린이도서연구회 25주년 기념식 및 정기세미나자료집), 어린이도서연구회, 2005)을 참고하면 된다. 이 연구에서는 각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사서나 교사나 학부모들의 반응을 비롯한 실제 활용 정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표 4〉 선정자 구성 및 선정자 실명 공개여부

발행기관	선정자구성	선정자실명 명시여부
문화관광부	분야별 전공교수	명시 않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분야별 전공교수	명시 않음
부산시교육청	분야별 전문가	명시 않음
대한출판문화협회	분야별 전문가	명시 않음
한국출판인회의	전공교수, 교사, 번역가, 도서기획가, 저술가, 도서평론가 등	명시
한국도서관협회	교수, 교사, 사서	명시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	명시 않음
책파세	소속교사와 회원	명시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	소속교사	명시

나. 권장도서목록의 형식과 구성

권장도서목록의 형식과 구성의 측면에서는 권장도서목록이 서지정보도구로서 어느 정도 유용한지, 선정을 위한 판단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본적인 서지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지, 즉 서명, 저자명, 역자명, 삽화가명, 출판사, 출판일, 면수, ISBN, 가격 등 선정도구로서 기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둘째, 적절한 독자연령이나 학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선택을 위한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해제나 서평을 비롯한 추천의 글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넷째, 이러한 해제나 서평, 추천 글의 내용 및 형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표 5 참고), 먼저 서지사항 기술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도서관협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권장도서목록에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이 공통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상황별도서목록은 서명과 저자명만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과 더불어 역자명, 출판일, 페이지, 가격, 면수까지 기술한 경우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생산된 권장도서목록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한국출판인회의, 어린이도서연구회의 경우 책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그림책을 비롯한 아동도서의 판단에 중요시되는 삽화가명은 어떤 권장도서목록에서도 기술되지 않고 있었다. 대체로 각 기관마다 서지사항의 기재에서는 일관성이 있지만, 역자명을 비롯하여 삽화가명, 출판사, 출판일, 면수, 가격, ISBN과 같은 항목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각각의 서지사항은 개별도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기에 모두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독자의 연령이나 학년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 정도의 안내를 해주거나(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도서관협회), 보다 세부적으로는 독자의 지적 수준에 따른 선택의 편의를 위하여 권장학년으로 구분표시를 해두고 있었다(어린이도서연구회, 책파세,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모임). 전교조학교도서관분

과에서는 별(★)개수로써 책의 이용자별 수준을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있었으며,²⁷⁾ 책따세는 책의 수준을 직접 하한선을 도입하여 ‘중2부터’와 같이 명시함으로써 선정된 도서에 대한 독자의 안내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문화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행한 권장도서목록은 읽을 독자에 대한 연령과 학년의 구분 없이 뭉뚱그려 청소년용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도서선택에 대한 보다 실질적 안내역할을 수행하는 서평이나 해제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부산시교육청이 발행한 권장도서목록에는 서평이나 해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외 기관이 발행하는 권장도서목록에는 선정도서마다 서평 및 해제가 수록되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개의 권장도서목록이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정도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서평이나 해제가 없어 피상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책에 대한 안내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록된 서평 및 해제의 내용과 형식을 검토해본 결과, 기관마다 그 특색을 달리하고 있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도서관협회, 어린이도서연구회의 경우는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해제에 그치고 있으나,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와 책따세가 발행한 권장도서목록의 경우 책의 내용적인 소개와 책에 대한 평가 등을 수록한 서평형식을 띄고 있었다.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가 수록한 서평에는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비롯하여 책을 읽고 난 이후 활동에 대한 안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서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서평자의 이름과 소속을 밝혀 책임 있는 추천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색으로 보인다. 책따세의 권장도서목록에 수록된 서평의 형식과 내용 또한 특색 있다. 책따세 서평에는 해당 책에 대한 청소년의 실제 반응과 더불어 어떤 청소년에게 그 책이 어울리는지, 어떤 상황에서 읽고 권하면 좋은 지와 같은 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와 마찬가지로 서평에 추천자의 이름, 소속을 비롯하여 이메일주소를 수록하고 있었다. 어도연은 책 내용의 간단한 소개에 그치는 해제가 수록되어 있으나, 특히 책의 평가과정에 등급기준을 마련해서 등급이 높은 책을 위주로 선정하고 등급수준을 공개함으로써 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²⁸⁾ 책따세와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의 권장도서목록에 수록된 서평은 교사 학생간의 독서교육 경험을 토대로 기술되어 있어 도서선택과 활용에 필요한

27)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었다. ★:책을 거의 읽지 않은 아이들에게 권하는 책, ★★:평범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권하는 책, ★★★:평범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권하는 책, ★★★★:평범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권하는 책, ★★★★★:책을 아주 많이 읽은 아이들에게 권하는 책.

28)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책을 평가하는 단위로 올챙이(Ω)를 사용하여 올챙이 마리 수로서 책의 등급을 매기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올챙이 한 마리(Ω)는 누가 이 책을 읽어도 좋겠다고 물었을 때 말리지는 않을 책, ΩΩ 누가 이 책을 읽어도 좋겠다고 물었을 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책, ΩΩΩ 누가 묻기 전에 먼저 좋은 책이라고 권하고 싶은 책, ΩΩΩΩ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 책, ΩΩΩΩΩ 내 돈으로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꼭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 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었다. 어도연은 각 권장도서에 매겨진 올챙이마리수를 공개함으로써 책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나, 2003년부터는 권장도서선정을 위한 어도연 내부의 평가용으로만 활용할 뿐 올챙이 마리 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의 권장도서목록보다는 보다 유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표 5〉 권장도서목록의 구성

발행기관	서지사항	연령 및 학년에 대한 명시여부	서평 및 해제 의 유무	기타 수록정보
문화관광부	서명, 저자명, 역자명, 출판사명	구분 없음	무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서명, 저자명, 역자명, 출판사명, 출판일, 가격, 면수	초, 중, 고	무	
부산시교육청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초등3·4, 초등 5·6, 중 고	무	
대한출판문화협회	서명, 저자명, 역자명, 출판사명, 가격, 출판일, 책표지	구분 없음	유	
한국출판인회의	서명, 저자명, 역자명, 출판사명, 출판일, 가격, 면수, 책표지	초, 중, 고	유	
한국도서관협회	서명, 저자명	저, 중, 고	유	색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서명, 저자명, 역자명, 출판사명, 면수, 가격, 책표지	권장학년 표시	유	색인
책따세	서명, 저자명, 역자명, 출판사명	권장학년 표시	유	추천자명, 소속 이메일주소
진교조 학교도서관분과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권장학년 표시	유	추천자명, 소속

다. 권장도서목록의 배포와 확산

마지막으로 권장도서목록의 보급과 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산된 권장도서목록이 소비자인 사서나, 교사, 학부모 등에게 전달되는 유형과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권장도서목록의 발행형태, 권장도서목록의 배포기관과 단체의 범위, 권장도서목록의 발행주기를 검토해보았다.(표 6 참고)

각 기관에서는 권장도서목록을 알리기 위해 책자형으로 발행하여 배포하거나, 관련 전문지에 실기도 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일간지에 광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하고 있었다. 모든 기관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권장도서목록을 홍보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복수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권장도서목록을 알리고 있었다. 책자형으로 발간하여 배포하는 기관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도서관협회, 어린이도서연구회로 조사되었다. 문화관광부는 일간지에 유료광고를 실시함으로써 권장도서목록의 존재를 전국적으로 알려내고 있었다. 또한 책따세는 계간지 ‘함께여는 국어교육’에 정기적으로 권장도서목록과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있었으며, 한국출판인회의는 서평지 Book & Issue²⁹⁾에 선정된 도서와 서평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생산된 책자형 목록은 전국의 도서관이나 학교, 서점, 출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었다.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된 책들은 국립도서관에 기증되고 있었다.

이들 생산되는 목록의 발행주기 또한 다양하였다. 정기적으로 발행하거나, 부정기적으로 발행하

29) 북앤이슈는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발행하는 서평지로서 2003년부터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는 경우도 있으며, 일회성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도 있었다. 정기적인 경우는 매월에서부터 매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간중심의 수서를 매월 해야 하는 도서관의 경우 신간 도서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장도서목록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권장도서목록의 생산이 정기적이며, 최신성이 높을수록 신간자료 선정을 위한 서지도구로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권장도서목록의 발행주기를 살펴 본 결과, 문화관광부, 부산시교육청,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었다. 이 중 어린이도서연구회의 권장도서목록은 1981년부터 연1회 정기적으로 발표되나 매년 기 선정된 도서들이 중복 발표되고, 선정된 도서 중 신간의 경우는 제한적이라 신간중심의 수서를 행하는 도서관의 경우 그 활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³⁰⁾ 한국도서관협회와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모임은 부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어, 최신성의 측면에서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연구회 뿐 아니라 부산시교육청, 전교조학교도서관분과모임,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그 해 발행된 최신도서와 기 출판된 도서를 대상으로 하여 권장도서를 선정하고 있었다. 그 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월간 및 계간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계간으로, 한국출판인회는 격월간으로, 책따세는 계간 및 반년간 혹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발표하고 있어 신간도서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에 부응하고 있었다.

〈표 6〉 권장도서목록의 발행주기 및 배포방법

발행기관	선정대상 도서	창간호 발행연도	발행주기	보급매체	배포기관
문화관광부	신간	1968	연간	자체홈페이지 일간지광고	선정도서 각 도서관에 기증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신간	1991	계간, 월간	자체 홈페이지 책자형	전국 초중고등학교, 공립도서관, 청소년단체, 대형서점
부산시교육청	제한 없음	2004	연간	자체홈페이지	중고교
대한출판문화협회	신간	1984	계간	자체홈페이지 책자형	중고교 및 도서관
한국출판인회의	신간	1999	격월간	자체홈페이지 서평전문지 Book & Issue	공공도서관, 출판단체, 독서모임, 전국주요서점
한국도서관협회	제한 없음	1999	부정기	자체홈페이지 책자형	국립도서관
어린이도서연구회	제한 없음	1981	연간	자체홈페이지 책자형	학교, 국공립도서관, 어린이도서 관, 서점, 출판사, 교육관련단체
책따세	신간	2000	계간, 반년간 수시	자체홈페이지 계간지 함께하는 국어교육	
전교조 학교도서관분과	제한 없음	2004	부정기	자체홈페이지	

30) 실제 현장사서들로부터 어린이도서연구회목록은 새로 개관하는 학교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신간 중심의 수서를 행하는 기존 도서관의 경우는 그 활용 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진우, “도서관에서 바라본 《어린이 권장도서목록》의 문제점”, 어린이책 문화운동 점검과 방향모색(어린이도서연구회 25주년 기념식 및 정기세미나자료집), 2005, p.118.

Ⅳ. 결론과 제언: 권장도서목록의 개발방안

권장도서목록은 ‘좋은 책’을 소개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 배포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은 아동 및 청소년의 독서교육 활동에 관련한 사서직을 비롯하여, 교사, 학부모들의 독서자료 선택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권장도서목록이 도서선택을 위한 선정도구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권장도서목록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권장도서목록이 선정도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좋은지 그 개발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 논문의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①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권장도서목록의 개발

먼저, 권장도서목록의 개발 시에는 책을 읽는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이해와 요구를 비롯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 자료의 선택 시에는 해당도서의 가치를 평가할 뿐 아니라 해당독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지, 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산,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권장도서목록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장도서는 수요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심리와 상황을 반영하고 이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책을 읽을 독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욕구나 독서경향을 비롯한 이해와 요구를 살펴보고 이를 선정에 반영하는 작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면서 보다 유용한 도서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② 어린이 및 청소년의 상황과 수준에 적합한 세분화된 권장도서목록의 개발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상황과 수준에 적합한 보다 다양하면서 세분화된 권장도서목록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의 권장도서목록은 ‘좋은 책’이란 이름하에 일반적으로 ‘모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천되며 권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책읽기수준이 다양하고, 요구도 다양하며, 관심분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을 위한 권장도서목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중학교 1학년생들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독서력과 독서체험을 가진 학생들이 섞여있다. ‘소년소녀명작전집’은 물론 성인 주순의 단행본까지 읽고 소화하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줄곧 만화만 읽는 학생, 책읽기라면 도무지 싫어하는 학생, 책을 접하지 못했을 뿐 언제라도 책읽기에 몰입할 수 있는 학생 등 다양한 수준과 특성을 지닌 중학교 1학년생들이 있는 것이다.³¹⁾ 그러나 현재 권장도서목록은 몽땅그려 어린이를 위한 좋은 책 및 청소년을

31)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책파세와 함께하는 독서교육(청어람미디어, 2005), pp.31-2.

위한 좋은 책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좀 더 세부적으로는 연령별, 학년별 좋은 책을 추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이와 같은 학년별, 연령별 권장도서목록과 더불어 어린이 및 청소년의 관심과 특성, 성별, 지역차, 수준차 등의 다양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세분화된 권장도서목록의 개발이 필요하다.³²⁾

③ 권장도서목록의 구성과 형식의 체계화: 서지사항의 완전한 기술

권장도서목록이 자료선택을 위한 서지정보도구로서 보다 유용하기 위해서는 권장도서목록의 구성과 형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권장도서목록의 서지정보항목들을 모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현재의 권장도서목록의 경우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정도의 서지사항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외 서지사항들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을 비롯하여 역자명과 삽화가명, 출판일, 면수, ISBN, 가격 등의 서지사항은 개별도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기에 모두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권장도서목록의 구성과 형식의 체계화: 서평 및 해제의 기능 강화

권장도서목록은 쏟아져 나오는 책들 중에서 악서(惡書)를 거르는 유용한 책의 구실을 한다.³³⁾ 따라서 권장도서목록을 만드는 일은 당연히 책에 대한 비평을 내포한다. 결과적으로 권장도서목록에는 각 권장도서에 대한 서평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평은 책에 대한 안내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책 선택을 위한 판단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개의 권장도서목록이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정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서평이나 해제가 없이 피상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책에 대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었다. 사서, 교사, 학부모들이 권장도서목록에 의존하여 도서를 선택하고 있는 현재의 경향과 추세를 고려해볼 때, 권장도서목록에 각 도서에 대한 풍부한 설명과 더불어 추천 및 선정이유를 밝히는 등, 선정된 도서에 대한 해제나 서평을 수록함으로써 책에 대해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평의 내용 면에서도 ‘책의 선택’을 돕는다는 권장도서목록이 가진 현실적 기능을 고려해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책에 대한 내용적 소개는 물론이거니와 비슷하거나 같은 주제의 다른 책과의 비교, 같은 저자의 작품과의 비교정보를 제공하

32) 최근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상황이나 주제에 따른 권장도서목록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상황별독서목록(아동·청소년편)이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독서목록(청소년·어린이편)은 책을 읽는 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 적합한 자료가 선정 개발되었으며, 최근 책으로 파릇한 세상만드는 교사들에 의해서도 다양한 주제별 권장도서목록(책을 읽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권하면 좋을 책,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책 등)이 개발되고 있다.

33) 김호정, “권장도서목록 들여다 보기,” 중등우리교육, 1998. 10, p.73.

고, 어떠한 연령과 학년에 좋은지, 어떤 상황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용한지와 같은 독자에 대한 안내정보를 풍부히 하고, 책을 읽고 난 이후 활동에 대한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책에 대해 판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책에 대한 등급기준을 마련해서 이를 토대로 평가된 평점을 기록함으로써 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⑤ 선정과정의 체계화 및 성문화가 필요

권장도서목록은 특정 목적과 의도에 맞는 “적절한 책을 골라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수용자에게 제시하는 독서도움자료”³⁴⁾이다. 따라서 권장도서목록을 만들 때는 권장도서목록을 만드는 목적과 의도, 선정된 책을 읽을 대상이나 독자, 이후 권장도서목록의 활용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권장도서목록을 만드는 목적과 의도는 생산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각 기관마다 권장도서목록을 만드는 구체적인 목표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러한 목적과 의도에 맞는 체계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성문화시켜 놓아야 한다.³⁵⁾ 권장도서목록의 생산과정과 절차를 체계화하여 성문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생산된 권장도서목록의 질이 담보될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도 신뢰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⑥ 권장도서목록 개발주체의 다양화와 사서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

앞서도 나타났듯이 권장도서를 선정하는 사람들의 구성이 대개 각 분야의 전공 교수로 편중되다 보니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수준과 이해를 고려하지 못하고 선정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사서들, 사서교사들, 각종 독서관련 시민운동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 도서평론가 등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권장도서 선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주체들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은 이용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책에 대한 요구 및 반응과 관련한 정보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독서교육서비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서들이 협력하여 권장도서목록을 개발한다면 보다 유용한 선정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부산 남구도서관, 울산 남부도서관, 경남 창녕도서관이 개발 배포한 독서치료용 목록이나 한국도서관협회가 개발한 상황별독서목록과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

34) 책으로파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전계서, p.44.

35) 이와 관련하여 미국도서관협회(ALA) 산하 청소년서비스협의회(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와 어린이서비스협의회(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의 활동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193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Best Books for Young Adults List와 Notable Children's Books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은 목록개발을 위한 정책과 개발과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해놓고 성문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책으로파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이 권장도서목록의 생산과정을 보다 체계화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다른 권장도서목록의 경우는 그러하질 못하다.

목록, 대구 동부도서관과 대구 학교도서관연구회가 공동 개발한 '현장교사와 동부도서관이 함께 엮은 추천도서' 등은 유의미한 시도이다.³⁶⁾ 그러나 이들 자료는 타도서관에서 자료선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들 단위도서관에서 개발된 목록들이 타도서관의 장서관발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정된 각각의 자료에 대한 서평과 해제를 추가하는 등 선정정보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06년 6월 개관예정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나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도서관관련 핵심기관이 주축이 되어 권장도서목록을 발행하는 것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다. 도서관관련 핵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용 신간도서를 점검하고, 이들 자료에 대한 서평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용 권장도서목록을 발간하고 배포함으로써 도서관을 비롯한 일선 독서교육현장의 독서자료 선택을 보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기관의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면 이들 기관이 중심이 되어 일선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담당 사서와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들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의 서평활동과 권장도서목록 발간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또한 일회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 도서관계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도서관계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자료를 일상적이며 체계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 자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뉴욕공공도서관에서는 Books for Teen Age와 Children's Books를,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청소년서비스협의회(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에서는 Best Books for Young Adults List를, 또한 어린이서비스협의회(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에서는 Notable Children's Books를 매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미도서관협회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자료를 안내하는 목록 뿐 아니라 그해 생산된 비디오나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각종 음반자료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이 중 우수한 자료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목록을 매년 개발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미국사서교사협의회(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가 발행하는 저널에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책들이 일상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School Library Journal과 같은 정기간행물에서도 좋은 어린이 및 청소년용 자료와 그에 대한 서평이 소개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월간으로 발행되는 '이달의 책'의 '청소년·아동란'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자료 중에서 아동청소년용 도서가 선정되어 수록되기도 한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상황별도서목록이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도서목록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36) 울산남부도서관에서는 2003년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 도서목록'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경남창녕도서관에서는 2002년 '마음을 움직이는 책들 모음'이라는 자료를, 부산 남구도서관에서는 2004년부터 '마음 아픈 이들은 남구도서관으로 오세요'라는 자료를 개발 배포하였다. 또한 대구 동부도서관은 2002년부터 학교교사들과 협력하여 권장도서를 개발하고 이를 집중 수집하여 학교별 순회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는 단순히 자료의 서지사항만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고 학교나 학부모들이 이들 자료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한국도서관협회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간되지 않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독서자료 선택과 사서들의 선택, 교사들의 선택, 학부모들의 선택을 위한 안내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미흡한 실정이다.

도서관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독서자료를 선정하여 안내하며, 독서상담 및 독서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과 관련한 공적인 기반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독서자료를 추천하고 안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권장도서목록과 같은 독서자료에 대한 안내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활동은 우리 사회에서의 사서의 전문적 입지를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사서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 자료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작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책에 대한 전문가집단으로는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청소년 도서에 대한 전문가집단으로는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사서와 사서교사들이 그 본연적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도서관과 사서가 권장도서목록 개발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향옥. 초등학교 저학년 권장도서 선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권재숙. 교과서와 연계된 권장도서목록 개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김남두 외. 초·중등학교의 독서자료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개발 연구. 1999.
- 김수경. 어린이도서선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5.
- 김은하. 1990년대 한국 아동문학의 장의 지배구조 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 김은하. “권장도서목록을 버려야 하는 이유-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목록 비판” 창비어린이 (2005, 가을), pp.49-67.
- 김호정. “권장도서목록 들여다보기.” 중등우리교육, 1998. 10, pp.72-76.
- 김효정.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모형” 중대논문집(인문과학편), 32 집(1989).
- 박은자. “청소년용 독서자료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창간호(1996), pp.238-308.
-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권장도서목록. 2006.
-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책 문화운동 점검과 방향모색(어린이도서연구회 25주년 기념식 및 정기세미나자료집). 어린이도서연구회, 2005.

- 오진원. “아이들에게 책은 어떻게 권해지고 있나?,” 어린이책 문화운동 점검과 방향모색(어린이도서연구회 25주년 기념식 및 정기세미나자료집), 어린이도서연구회, 2005, pp.57-109.
- 이연옥.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9), pp.233-256.
- 이진우. “도서관에서 바라본 「어린이 권장도서목록」의 문제점” 어린이책 문화운동 점검과 방향모색(어린이도서연구회 25주년 기념식 및 정기세미나자료집), 2005, pp.115-121.
- 이철우, 박진룡. “청소년 독서자료의 분석.” 독서연구, 3호(1998), pp.126-152.
- 장지숙. “어린이 도서 서평매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4. 6), pp.213-238.
- 조월례. “「어린이 권장도서목록」과 어린이 책문화의 변화.” 어린이책 문화운동 점검과 방향모색(어린이도서연구회 25주년 기념식 및 정기세미나자료집), 어린이도서연구회, 2005, pp.22-45.
- 책으로파랗게한세상만드는교사들. 책파세와 함께하는 독서교육. 청어람미디어, 2005.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어린이도서연구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독서매뉴얼, 독서인증제의 문제점과 올바른 독서교육의 방향 모색(올바른 학생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공개토론회자료집), 2005. 4. 27.
- 한국도서관협회.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독서목록 청소년·어린이 편 한국도서관협회 2005.
- 한국도서관협회. 상황별 독서목록-아동·청소년 편, 한국도서관협회, 1999.
- 허병두. “이해와 비판, 그리고 제안-권장도서목록의 작성과 도서선정 작업을 중심으로 -”,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2002. 11. 27.
- “독서교육, 권장도서, 도서관” 창비어린이 10(2005 가을), pp.5-95.
- Bishop & Orden, “Reviewing children’s book: a content analysis.” *Library Quarterly*, Vol.68, No.2(1998), pp.145-182.
- Blake, Virgil L. P.. “The Role of reviews and reviewing media in the selection process: an examination of the research record.” *Collection Management*, Vol.11(1989, 1·2), pp.1-40.
- Dodson, J. S.. A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picture story book reviews published in selected journals during the year 1981.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83.
- Kennemer, P. K.. An analysis of reviews of books of fic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ublished in major selection aids in the United States in 1979.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1980.
- Mecham, M. E..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book reviewing in selected journals from

- 1924-1984.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1989.
- Wilson, Margo and Kay Bishop. "Criteria for reviewing children's book,"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43, No.1(1999), pp.3-13.
-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http://www.kpa21.or.kr>)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 부산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index.htm>)
- 아침독서운동 카페(<http://cafe.daum.net/morningreading>)
- 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http://www.childbook.org>)
-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홈페이지(<http://www.readread.or.kr>)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hakdo.net>)
-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교사들 홈페이지(<http://cafe.daum.net/libte>)
- 한국출판인회의 홈페이지(<http://www.kopus.org>)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pec.or.kr>)